

埋伏智齒의 拔去를 위한 Standard vien

매복지치발거시 정확한 standard vien는 술전에 발치의 난점을 검사하는데 중요하다.

접근성-하악 외사선이 수직상태를 이루면 접근이 어려우며, 수평일때 접근이 용이하다.(사진 1)

위치 및 깊이-매복치장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위, 수직위, 근심위 및 원심위로 각각 나눈다.

수직위매복치의 발거시 straight elevator를 근심측에 대고 힘을 가하게되는데 만약 원심경사위치아에서 이와같이 할때 치아의 원심측 치조골에 힘이 가해져 악골결절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

수직위매복치는 제 2, 제 3 대구치의 치간치조골의 폭이 제 1, 2 대구치의 폭과 비슷하다(사진 2). 원심경사위의 경우 제 2, 3 대구치치간치조골의 폭이 제 1, 2 대구치 사이의 폭보다 훨씬 좁다(사진 3).

Winter의 방법에 의한 매복치의 관계를 보면, 먼저 맹출된 하악구치의 교합면을 연결한 바둑무늬선을 중심으로 수직위의 경우 매복치의 교합면이 바둑무늬선과 평행을 이루며(사진 2), 원심위의 경우

치아의 근심에서 만나 바둑무늬선과 교합면 서로 이개된다(사진 3).

두번째 제 3 대구치 원심부위에서 제 1, 2 대구치치간치조골까지의 치아를 덮고 있는 치조골연을 나타내는 점선이 있으며, 셋째 하악골내 매복된 치아의 깊이를 측정하는 실선이 있다.

점선에서 수직으로 가상선을 그을때 치아와 만나는 부위가 elevator를 대는 부위가 된다. 원심경사위를 제외하고 매복치의 근심면 법랑백아 경계부에서 점선까지의 수직선 즉 실선이 길어질수록 발거가 어렵게 된다(사진 4). 원심위의 경우는 원심면 법랑백아경계부에서, 실선을 긋는다.

또한 매복치의 교합면이 舌側으로 향한 설측경사위와 頰部로 향한 협측경사위로 나눌 수 있으며 standard view로 어느정도 감별할 수 있다. 설측경사위의 경우 교합면이 film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치관부가 보다 radiopaque하게 명확히 나타나며 협측경사위의 경우 치근단이 film과 가까워져 이 부위가 보다 명확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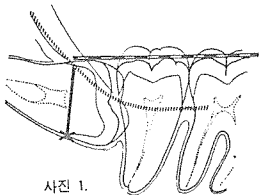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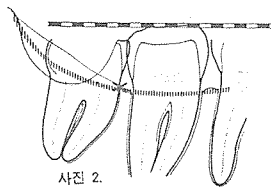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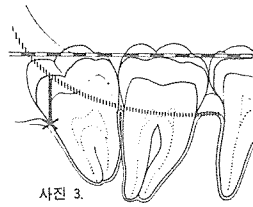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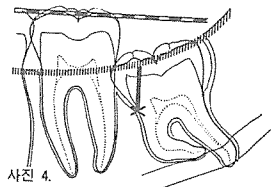


사진 4.

사진 1.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을 나타내는 점선이(사진 2)에서와 달리 수직 상태를 이루는 경우 발거하려는 치아의 접근이 더욱 어렵다.

사진 2. Winter의 분류법에 의한 수직위로 바둑무늬선과 제 3 대구치 교합면이 평행을 이룬다.

사진 3. 원심위로 제 3 대구치 근심면이 먼저 바둑무늬선과 만나서 후방으로 이개된다.

사진 4. "X"점은 법랑백아질경계부로서 치아발거시 elevator의 작용부위이며 점선까지 연결한 실선이 길수록 발거가 어렵다.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